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11.12.(목)/ 총 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국제개발협력센터 - 전혜은 센터장(051-797-4928)/김주형 부연구위원(051-797-4796)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6 BADA 프로그램’ 통해 신규 해양수산 ODA 사업 발굴 지원

- 협력국 수요 기반 사업 구상 구체화… 정책·기술 공유에서 실질적 협력사업 발굴로 확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조정희)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6 BADA(Best Achievements in Oceans and Fisheries OD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국 수요에 기반한 신규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BADA 프로그램은 한국의 해양수산 정책·기술 경험을 협력국과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 수요를 신규 ODA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2년부터 공동 운영해 온 해양수산 정책성과 확산 프로그램이다. 특히 수요 발굴부터 사업 기획, 전문가 자문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가나,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스리랑카, 필리핀, 팔라우 등 주요 협력국의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사교육, 친환경 해운, 항로표지, 어선·어구 안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와 ODA 사업 기획 교육을 받았다.

이어 각국 참가자들은 자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ODA 사업제안서(Project Concept Paper, PCP)를 발표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사업 구상을 구체화했다.

주요 제안 사업은 ▲청년 어선원 양성(가나) ▲국가 해양공간계획 수립(피지) ▲수산물 콜드체인·해양쓰레기·지역사회 기반 해양관광(스리랑카)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연안 회복력 강화(마이크로네시아) ▲지속가능한 어업·양식업 발전

(필리핀) ▲수산정보 관리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팔라우) 등이다.

한편, BADA 프로그램과 연계해 11월 4일(수)에는 ‘2026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ICCOF)’가 개최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정부·연구기관 관계자와 6개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해양수산 ODA 정책과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BADA 프로그램은 협력국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 ODA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주형 부연구위원(051-797-4796, jhkim7664@kmi.re.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 BADA 프로그램 및 KICCOF 사진



